



◇바즈라비라비라(19-20세기).

한빛문화재단 소장 탕카52점

한국최초 대영박물관 특별展

11월23일까지 타라보살등 예술성 높은 작품



영국 대영 박물관의 한국 전시관에 박물관 개관 이래 최초로 한국인 개인 소장 특별전이 9월 11일부터 11월 23일까지 열린다. '티베트의 유산-한광호 소장 탕카전'이다.

전시품들은 관세음보살과 자비심과 선행의 표상인 '타라보살'을 비롯해 석가도, 나한도, 미륵도, 아미타 등 만다라 속 부처그림 외에도 부처에서 수호신 역할을 하는 장대한 불상이나 허공을 날아다니는 보살상 및 현지의 영적 지도자들에 관한 작품 등 52점이다.

이 없는데 충격을 받은 한광호 한빛문화재단이사장(75·사진)이 2000년 120평 규모의 한국관 오픈을 위해 후원을 데서 계기가 된 것. 이후 한 이사장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영국정부로부터 '명예시민훈장'을 받기도 했다.



불상(8)

땅속에서 솟은 부처님들

안개 낀 어느 날 아침, 경주 시내에 있는 굴불사지 사방불을 찾았다. 그런데 어느 때와 달리 부처님들이 바위 속에서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닌가? 물론 안개 때문에 그러한 환상이 보인 것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정기에 달한, 석굴암과 불국사가 조성된 경덕왕 때 제작되었다는 점이다. 석굴암이란 만 인공미의 절정을 보여준 대표적인 유적인데, 어떻게 자연스러움을 극도로 살린 굴불사지 사방불이 같은 시기에 공존한 것일까? 그러나 이 불상들이 서로 다르지만 한 것은 아니다.



◇굴불사지 사방불. 다양한 표현방식의 여러 부처님들이 자연의 바위 속에 계시는 모습을 표현하였는데, 사방불 뒤의 독을 따라가며 보아야 더욱 실감이 난다.

지하서 염불소리 들려 파보니 불상이... 출현방식 신라인의 토속신앙과 연관

국유사에서 풀 수 있다. 신라 경덕왕(재위기간 742-765)이 백을 사를 가던 도중 산 밑 땅 속에서 나는 염불소리를 들었다. 하도 신기해서 그곳을 파보게 하니 사면에 불상이 조각된 큰 바위가 나타났다.

약사불을 세웠는데, 얼굴은 돌을 새김으로 입체감을 충실하게 나타내었으나 점차 아래로 내려오면서 돌을 새김이 낮아져 급기야 배경의 광배는 조각 선으로 파고드는 흐름을 보였다. 또한 남쪽에는 삼존불을 배치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왼쪽의 보살상이 떨어졌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구도·깨달음의 성자'...나한 150점 한자리

춘천박물관 개관1주년 10월26일까지 특별전



◇송광사 16나한도(부분).



◇영월 창녕사지 오백나한상 중.

나한, 아라한(阿羅漢)의 줄임말로 소승불교에서 수행자가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단계에 이른 자를 뜻한다. 국립춘천박물관(관장 최응천)이 개관 1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구도와 깨달음의 성자(聖者), 나한'전은 나한신앙과 그에 관련된 유물을 한자리에 모은 전시회다.

9월 8일부터 10월 26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일본 지은원에서 대여해온 '오백나한도'와 보물 1367호 '송광사 16나한도', 영월 창녕사지에서 출토된 '오백나한상' 등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나한 관련 유물 150여점이 선보인다.

사경하는 행위의 공덕을 중요시하게 된다. 정 교수는 "고려시대에는 공덕을 쌓아 수복과 인연을 기원하는 사경 공양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다"며 "경전의 내용을 입축해 그림으로 설명한 변상도(變相圖)를 그려 넣은 사경은 불교 공덕신앙과 제지, 염로 기술의 발달, 불교회화 역량을 한데 모은 미려함과 호화로운 장식이 절정에 이른 예술품"이라고 말했다.



◇영월 창녕사지 출토 나한상 중.



◇송광사 16나한도(부분).

고려시대에는, <고려대장경>과 <지지심경>의 발행을 이유로, 흔히 목판인쇄와 활판인쇄의 전성기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속명 여대 정병삼 교수는 9월 4일 미디어·역사·문명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고려시대 스님들은 필사를 통해 불서를 유통했으며, 당시 사경은 공덕신앙과 회화 역량이 총 결합된 우수한 예술품"이라고 발표했다.

사경(寫經)은 불교 경전의 내용을 붓으로 베껴 쓰는 일이다. 처음에는 경전의 내용을 배우거나 널리 전파·보존하기 위한 현실적인 목적에서 시작됐던 사경이, 이후에는

"고려시대 스님들 필사 통해 불서유통 사경은 공덕신앙 결집된 우수예술품"

정병삼교수, 국제학술심포지엄서 발표

한편 올해 영화제에서는 '보리밭의 여름', '오세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등이 상영된다. 한상희 기자

제7회 대한민국종교예술제가 10월 11일부터 28일까지 열린다. 대한민국 종교 예술제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협의회 등 7개 종교가 함께 문화예술 분야를 통해 종교 간의 화합을 이뤄내자는 취지로 1997년부터 매년 개최돼 왔다.

대한민국 종교예술제 10월11일~28일까지

단편영화 25일까지 공모

특히 영화제는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단편영화를 공모, 수상작을 상영한다. 공모작은 장르 제한 없이 30분 이내로 된 창작 작품이어야만 하며, 신청접수는 9월 15일, 응모작 마감은 16-25일까지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종교예술제 홈페이지(www.kra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영화제에서는 '보리밭의 여름', '오세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등이 상영된다. 한상희 기자

제6회 한국정토학회 학술세미나

■일 시 : 2003년도 9월 20일(토) / 이사회 : 오전 11시 세미나 : 오후 1시
■장 소 : 부산 감로사 심천불전(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2동 33번지)
■문의전화 : 부산 감로사 051)803-0188 한국정토학회 02)581-3138

- 주 제 : 정토 의례·의식
■사 회 : 이법산스님(동국대)
■구조강연 : 강동균 회장(동아대 교수)
■발 표 자 : <제1주제> 최법혜스님(동국대 교수) - 사원청구에 나타난 정토의식 토론 : 이법홍교수(창원대)
<제2주제> 이태원스님(중앙승가대 교수) - 정토 예찬 토론 : 김용환교수(부산대)
<제3주제> 한보광스님(동국대 교수) - 정토 예불 및 발원문 토론 : 광만연교수(동아대)
<제4주제> 정각스님(동국대 교수) - 천도의세계 나타난 정토사상 토론 : 김제일법사(동산반야회)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부산 감로사
주 관 : 한국정토학회

평불협 창립 11돌 기념 소년소녀가장·독거노인돕기 후원의 밤

귀의 삼보 하시고, 통일보살의 요람인 평불협에서는 창립 11돌을 맞이하여 남북이 하나되고 우리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원행으로 「소년소녀가장·독거노인돕기 후원의 밤」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사)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이사장 정인악 회장 범 타 합창 북한사리원금강국수공방후원회 회장 김도연 합창

- ◎ 공연 일정 : 2003년 9월 24일(수) 오후 7시
◎ 공연 장소 :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대연회장
◎ 티켓 문의 : 평불협 ☎02)735-5558~9 전송 735-5564 http://www.bubtanet.org
◎ 협 찬 : 한국마사회, 대선제분, (주)천영의전클럽
◎ 후 원 :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은해사, 조계사, 동화사, 불국사, 도선사, 봉은사, 화계사 구룡사, 대전사, 선본사, 포교사단, 불교방송, 불교TV 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 주간불교, 만불신문, 대한불교
◎ 후원 계좌 : 예금주 신광수(평불협) 국민은행 205-25-0009-491